

2015 1. 25 연중 제 3 주일

제 1 독서 : 요 나 3,1-5.10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제 2 독서 : 코린토 1 7,29-31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 음 : 마르코 1,14-20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자신도 예수님께 사람을 낚는 낚시꾼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뽑히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까지 몇분이나 낚으셨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까지 몇분이나 하느님의 사람으로 낚으셨는지? 개신교는 열심히 합니다. 혹시, 우리는 **“나만 천당가면!”** 하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수천명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과연 몇분이나 성당으로 인도하셨는지요? 곧 우리가 교리를 시작합니다.

새로오신 분들, 입교하실 분들을 위해서 재교육을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교, 골프회, 한인회, 무슨 동호회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예수님께 받은 소명은 거의 실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과 지식이 있다면 시몬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아가 그랬듯이 “나는 그 분을 보았소!”** 하고 기쁨에 차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아직도 신앙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그 만큼 또 모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견진교리반에 방문을 하여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Father, What is different between Catholic and Christian?”**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르냐? 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중국어 표기입니다. 개신교는 정확히 말하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이 무엇이 다르냐? 고 물어 보아야 하는데, 무식하니까 가톨릭과 크리스찬이 무엇이 다르냐? 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종가입니다. 개신교는 1550 년경에 마르틴 루터, 칼빈등에 의해서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간 분파입니다. 사실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정통 마르틴 루터교나 칼빈 장로교와도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스웨덴, 핀란드, 독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하면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 되었습니다. 특히 50 년, 60 년대 초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미국의 개신교가 이미 개신교 정통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는 일치 합니다. 우리 옛날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맹목으로 믿기만 하셨다고 그러는 데 큰 착각입니다. 그 분들은, 저희 어머니만 보아도 문답을 달달 외우셨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첫영성체, 첫고해를 하기 위해서 그 문답들을 다 외우고 이해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공동체도 그러하였습니다. “신부님 그냥 주세요!” 그런데 주면 뭐합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지난 금요일 복음을 살펴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열두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교구 사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재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구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엑소시즘**은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역사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당에 와서 집 축복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곤 합니다. 한국 형제님들은 새집을 사거나, 새 가게를 시작 할 때에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지만, 이곳 미국 공동체, 히스페닉 공동체는 주로 헛것을 보기 때문에, 유령을 보기 때문에 즉 한국의 토속신앙으로 말하면 귀신을 뱉니다, 그러면 저에게 집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흥가에 자기도 모르게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집 매매시에, 그 집에서 삼년이내에 사람이 죽은 사실을, 반드시 그 집을 살사람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년이 지나면 그 집에 이사를 가서, 모르고 살수가 있지요. 부탁을 받고 그런 집을 방문하면 제가 혼들을 뱉니다. 이분들은 무서워서 쫓아 내려고 하는데, 천주교 신앙에 나옵니다. 연옥 영혼이 억울하게 죽었거나 또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안해 주었을 때에, 하느님께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꿈속에 나타나거나 우리의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장소가 그들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이지만, 어떤 일들은 저도 보았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는 가마솥 뚜껑이 가마솥안에 들어가 있고, 빗자루가 혼자 움직이고, 무당이 작두위에서 춤을 추어도 다치질 않습니다. 이것들은 거짓말이 아니지요.

요즘에는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함께 한 사람들 중에는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이야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의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안 되는데, 엑소시즘을 통하여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지식을 다 통털어도 낫지 않았던 병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을 자기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을 다루는 의사들중에는 신자가 아닌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신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에이~~”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형제 자매님들도 성령기도회나 성령대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치유기적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의 학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일 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서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사탄이 악령으로 움직일 때에는, 한 악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악령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령들이 가장 좋아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지저분한 것! 더러운 곳을 좋아 합니다. 제가 집 축복을 가 보면, 대개가 집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들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대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마음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거처를 마련 하는 것입니다. 요즘 왜 정신 병자가 많습니까? 사실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령에 사로 잡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죄의 감각이 없어져 있습니다. 죄의 감각이 둔해진 것이 무엇이나? 하면 하느님께 대한 그 시선이 마귀라는 그 작은 존재에 의해서 혼동이 되어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까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여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신병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악령은 항상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는 **성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즉 악령을 차단하는 방법은 무엇이나?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고해성사를 진실하게 열심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제 1 독서를 묵상하여 보시고 내가 하느님 은총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2 독서를 읽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오로사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받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5.10

주님의 말씀이 1 요나에게 내렸다.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3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4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5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10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25(24),4-5 ㄴㄴ.6 과 7 ㄴㄴ.8-9(◎ 4 ㄴ)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7,29-31

29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30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31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르 1,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4-20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